



#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



<b>인적사항</b>	이름		학번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연락처		E-Mail	
	파견국가	일본	파견학교명	와세다 대학교
	파견시기	2025.09~2026.02	파견 기간	6개월
<b>파견정보</b>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문형	일본어 비즈니스 회화에 대해서 배운다.	
		일본어의 문화사	일본어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	
		사회인 기본력 기르기	일본어의 비즈니스 회화와 회사문화에 대해서 배운다.	
		스페인어문화권론	스페인어권의 역사적인 인물,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일본어 존경어 표현 및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화에 대해서 배운다.	
		총합일본어	일본어 단어, 보고서 및 요약문 쓰는 방법, 일본어 문장 읽기	
<b>체험 수기</b>	<b>I. 파견대학</b>			
	<b>와세다 대학교</b>			
	:학교 건물이 엄청 근사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엄청 많은 대학교이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대학 축제도 했었어서 일본 대학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업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었다. 학교가 굉장히 넓고 토야마 캠퍼스랑 본캠퍼스랑 가깝지만 학교가 커서 갈 때 조금 시간이 걸렸다. 주변에 한국 음식점, 일본 음식점이 있어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b>체험 수기</b>	<b>2. 파견 전 절차</b>			
	합격했을 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로 갔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계좌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사본, 일본어 능력시험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에서 메일로 보내준 스터디 플래너를 일본어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b>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b>			
와세다 대학 사이트에서 마이 와세다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강신청을 한다.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있고, 1차에서 신청 못했으면 2차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차에서 정원이 가득한 수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3차에서는 수업을 듣고 자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취소하고 다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 기숙사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다.				

## II. 학업

###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앞서 말했지만, 내가 들었던 과목은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型、日本語文化史、社会人基本力つける、スペイン文化圏論、ポートフォリオをつくる、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自分史を書く、流行語と日本社会、日本語で学ぶ国際関係論、漫画・アニメから学ぶ日本語学習法, 総合日本語를 들었다.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型이란 과목은 일본어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표현을 사용해서 작문하고 교수님께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검사받고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 출석은 수업이 시작하고 바로 한다.

日本語文化史라는 과목은 일본어의 역사에 관해서 배웠다.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중간에 주변 사람이랑 교수님이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답하는 형식이 많았다.

社会人基本力つける이란 과목에서는 일본어 존경어 표현,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화체, 사용하면 안되는 회화체에 관해서 배웠다.

スペイン文化圏論이란 과목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위인과 위인이 살았던 시대에 관해서 배운다. PPT는 따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PPT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출석은 온라인, 출석카드로 나뉘어져 있다. 스페인어 전공이라서 선택해서 들었다.

ポートフォリオをつくる이란 과목에서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부분까지 만들고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부분이라던가 해매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께 물어보거나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나가면 된다. 출석은 과제 제출한걸로 출석 확인한다.

自分史を書く이란 과목에서는 자신의 역사대해서 작성하고 매주 제출하는 형식이다. 분량은 자유롭게 자신이 작성하고 싶은 부분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그룹으로 나뉘어져 그룹멤버에게 자신이 작성한 이야기를 읽고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주면 된다.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님이 피드백해주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수정/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면서 가다듬으면 된다.. 출석은 수업이 시작하고 바로 한다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에서는 일본어 존경어 표현,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화체에 관해서 배운다. 그리고 자신이 흥미있는 회사에 관해서 조사하고 발표한다. 출석은 수업이 시작하고 바로 한다.

流行語と日本社会이란 과목에서는 일본어 유행어에 관해서 일본사회아 연관지어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흥미있는 유행어에 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한다. 출석은 수업이 시작하고 바로 한다.

日本語で学ぶ国際関係論이란 과목에서는 일본어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 발표를 2번하는데 자신이 흥미있는 테마를 선택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면된다. 수업시간에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발표자 혹은 그룹멤버들과 테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출석은 수업이 시작하고 바로 한다.

漫画・アニメから学ぶ日本語学習法에서는 자신이 흥미 있는 그룹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룹원들과 같이 애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애니에서 나왔던 장소에 가보면서 그룹 멤버들에게 설명하는게 주를 이루었다. 그룹 멤버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출석은

과제 제출로 확인한다.

総合日本語이란 과목에서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특정 테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책에 나온 표현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면 교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수업이 시작하면 바로 단어 및 작문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주 공부하는게 중요하다. 온라인으로도 작문 시험이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하지 않을 시에 출석 점수에서 감점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과목은 日本語文化史,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自分史を書く이다. 日本語文化史에서는 실제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들을 수 있고,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때문이다.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과목은 일본어 존경어 표현에 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존경어에 약한 사람이라면 이 수업을 듣고 존경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自分史を書く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 또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재미있다.

## 2. 외국어 습득 정도

일본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 실력이 전보다 향상된 것 같다. 수강신청 할 때 수업계획서를 참고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흥미가 가는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수업을 들었다.

## Ⅲ. 생활

###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도장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쓰이지 않아서 놀랐다. 트레블 월렛 혹은 트레블카드를 만들고 가져가는 것이 생활할 때 편리하다. 세븐일레븐에서 출금한다면 수수료 무료이다. 증명사진도 필요없다. 110V변환 어댑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한다면 동전지갑이 필요하다. Esim이 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유심발급받을 때 돈이 들지 않는다. IC카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입국시에는 유학온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입국심사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지 물가는 쌀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밥을 별로 안 만들어서 먹고 면요리를 주로 해서 먹게 될 것이다. 한국과 비교해서 가격이 2배다. 교통비도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 혹은 걸어서 대학을 가거나 할 것 같다.

###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매달 건강보험료 내고 혜택 받은게 없다. 유초은행

에 가서 CASH CARD를 만들게 될 텐데 휴대폰으로 만드는 것보다 직접가서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했을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은 도쿄메트로와 도쿄메트로 환승은 무료거나 싸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면 환승이 되지 않는다.

통신은 라쿠텐으로 사용했는데 사람이 많은 곳, 지하철 안에서는 통신이 느려지긴하지만 사용한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제한 요금으로 세금포함 3200엔정도 매달 지불하였다.

###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인터넷에서 조사하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바로 갔다.

후지코 F 후지오 박물관에 가서 이 작가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시대에 따라서 보면서 감상했다.

에노시마에 가서 바다 풍경을 보거나 길거리 음식을 사먹으면서 즐겼다. 열차도 타서 일본 소도시 풍경 보는게 굉장히 재밌었다.

조시가야 신사 축제가 있어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을 사서 먹거나 행사를 감상하였다.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보는 내내 즐거웠다.

11월에 대학 축제도 했었어서 일본여자대학에 가서 축제 참여하고 와세다 대학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였다. 와세다 대학에서 한 축제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하지만, 한국 대학과 다른 일본 대학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다.

아카바네가 이자카야로 유명하다고 해서 여가시간에 아카바네에 있는 이자카야에 가서 옆사람과 일본어로 일상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주 갔다.

새해에는 가부키초에 가서 관광객들과 함께 신년 카운트 다운을 세고 하츠모데하러 메이지 진궁에 가서 소원을 빌었다. 오미쿠지도 했지만 기대했던 오미쿠지랑 달라서 실망했다.

지브리 박물관, 지브리 실사 음식점에가서 지브리 인형을 샀다. 지브리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되었고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하는데 매진이 빨리되기 때문에 빨리 예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브리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감상하고 먹었다. 지브리 실사 음식점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경험으로 먹어볼 만 하다.

대학에서 친해진 중국인 친구랑 이자카야 혹은 산책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였다. 처음으로 사귀 친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중국에 대해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녁에 롯본기에 가서 일루미네이션을 보았다. 일루미네이션을 보았을 때 동화 속 한 장면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뻐다.

이외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카페에 가서 과제 혹은 일본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예전부터 일본에서 살아보고 대학에 다녀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져서 굉장히 행복했다. 또한, 나의 부족한 일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유학 온 기간에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였다. 학업만으로는 일본어 향상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서 생활하였다. 이자카야에서 일하면 일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여러 이자카야에서 면접을 보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까 불합격된 곳이 많아서 슬펐지만, 중국인 친구가 용기를 주어서 좌절하지 않고 이자카야에 지원을 하였고 면접을 봤는데 바로 합격되서 굉장히 기뻐했다. 또한, 알바하는 곳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 점장, 손님들이 상냥하다. 그래서 일할 때 힘들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일본 이자카야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될 수 있었고 일본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 점장, 손님에게 일본어 잘한다고 자주 칭찬들어서 일본어에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본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을 때 참여하고 싶은 축제가 있어도 기간이 안 맞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길게 체류할 수 있게되다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축제가 있다면 바로 참여할 수 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크나큰 메리트였다.

같이 수업듣는 사람들을 보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4학년이 되기 때문에 학점 관리랑 TOEIC, DELE 공부를 할 것이다. 또한, 인턴쉽을 할 수 있다면 참여해 보려고한다. 그리고 졸업하면 일본의 오사카에서 취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CJL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영어 혹은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업듣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 행사에 참여하거나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놀러다니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유학기간을 정말 뜻깊고 재밌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기타사항

유학 기간이 반년이 아니라 1년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